열린광장

• 간증 / 개척수기 / 미담 / 개교회 소식 / 독자투고

성결가족들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지 7~8매 분량(A4한상)으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이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 ☎ 070-7132-0091~5
http://www.sknews.org
E-mail sknews12@daum.net

목회기고1

고난은 축복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거대한 수족관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수족관에다 물고기들을 넣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수족관에다가 태평양 연안의 많은 물고기 종류를 전시할 준비를 하고 자동차로 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평양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온도와 햇빛의 양도 그대로 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싣고 토론토에 도착 했는데 와서 보니 물고기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태평양 바다의 조건과 꼭같이 해서 운송했는데 고기들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몇 번이나 시도 했는데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수족관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운반 차량에 바다의 악동이라고 하는 문어 새끼, 상어 새끼 같은 부법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평양 바다의 물과 온도와 햇빛을 맞추어 편안히 물고기를 수송했을 때는 모두 죽었는데 악동들과 같이 올 때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어 새끼들과 상어 새끼들이 물고기 사이를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고기들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직 편안하고 안일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즐거움을 찾고 그 영혼은 결국에는 영적 무기력이나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만나는 고난의 아픔들은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양성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며, 환난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만들어져서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아브라함, 욥, 야곱, 요셉, 모세, 바울, 베드로 등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난 학교를 통과한 후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도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 백성은 고난이 있으나 불신 백성과 달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고난을 통한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며 축복이 될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금처럼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고난으로 인하여 성결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 고난의 학교를 잘 졸업하여 혼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성결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수 목사
반산교회 원로

목회기고2

신뢰받는 리더(빌 4:4-13)

하버드 경영대학원 빌 조지(Bill George) 교수는 리더십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리더가 구성원으로 신뢰를 받는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리더의 신뢰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실상 리더가 신뢰받기는 무척 어렵게 보인다. 에크론 대학교University of Akron) 메이어(D. Mayer) 교수는 신뢰받는 리더가 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첫째, 역량 강화이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려면 우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리더는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다. 반면 역량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인격적 성품이 좋아도 리더로 신뢰받기 어렵다.

둘째, 소통의 달인이 된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그의 저서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신뢰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즉 신뢰는 상호이해이며, 예측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셋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 서는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구성원 개개인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궁합이 더 잘 맞는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대해야 한다.

다섯째, 언행일치이다. 구성원들에게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더가 약속을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구성원들은 리더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할 것이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신뢰를 쌓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를 꼽고 있다. 특히 기업의 리더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스트레스를 최초로 연구한 한스 셀리에(Hans Selye)는 유익한 스트레스, 중립적인 스트레스, 해로운 스트레스를 구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는 유익하기보다 해로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수많은 도전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을까?

첫째, 그는 항상 긍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전했다(빌 4:4). 둘째, 그는 항상 하나님과 접속했다. 전기 제품이라면 전원에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동한다. 바울은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접속을 유지했다(빌 4:6). 셋째, 그는 윤리적으로 살았다. 참되고, 경건하거나, 옳은 일을 선택했다(빌 4:8). 기업가의 윤리의식은 신뢰받는 첫걸음이다. 넷째, 그는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했다.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다(빌 4:11). 우리는 바울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또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실수와 허물이 크지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메꾸어 간다면 후에는 신뢰받게 될 것이다.

최종인 목사
평화교회

신앙묵상

불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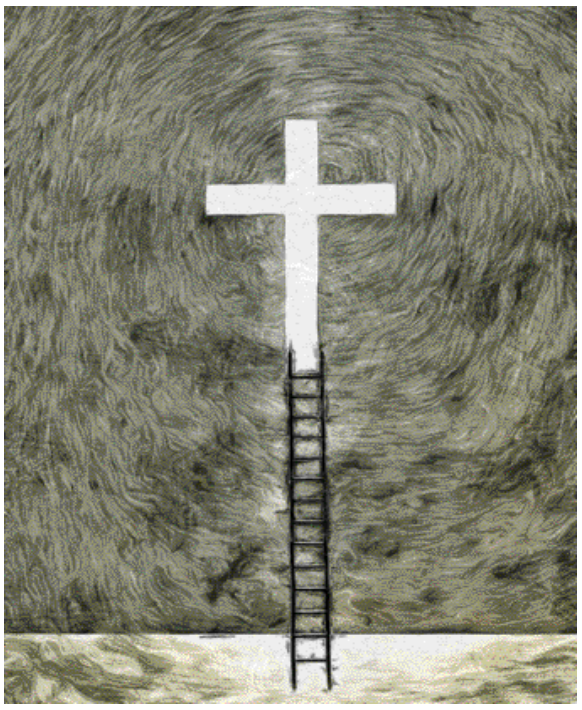
임세빈 목사
참빛누리교회 원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2~14)

독수리는 큰 나무 높은 꼭대기나 절벽 위에 가시 돋친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갓 태어날 새끼들을 위하여 부드러운 깃털로 아늑하고 포근한 둥지를 만든 후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독수리가 안전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그 새끼들이 자라서 날개 짓을 하며 나를 준비를 하게 되면 큰 날개로 둥지를 휘저어 포근하고 안락하게 했던 깃털들을 모두 날려 버립니다.

세찬 바람에 둥지가 흔들릴 때면 둥지의 가시들이 새끼를 아프게 찔러대어 새끼들은 괴로워 이리저리 몸을 피해 보다가 새로운 환경을 찾기 위해 창공에 몸을 던져 나르는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중의 왕이 되어 드넓은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과잉보호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불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잠재된 능력의 개발,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연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